

메가FTA 추진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와 기업 대응전략

2015년 5월

kotra

통상지원총괄팀장 양은영

목 차

I. 최근 메가 FTA 추진 동향

II. 주요 FTA별 논의 동향

- 1. TPP
- 2. RCEP
- 3. AEC

III. 메가 FTA추진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 1. 낮아지는 관세장벽 VS 높아지는 비관세장벽
- 2. 시장통합

IV. 기업의 대응전략

V. 주요정보원

I 최근 메가 FTA 추진 동향

WTO 중심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더딘 진전 → 지역무역협정 가속화

지역무역협정의 단계별 경제통합단계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이유

- ▶ 역내 국가 간 호혜적인 특혜 관세와 각종 제도적 지원
 -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투자 유치, 외교안보 유대
 - 경제 전반의 경쟁력 및 효율성 증대

I 최근 메가 FTA 추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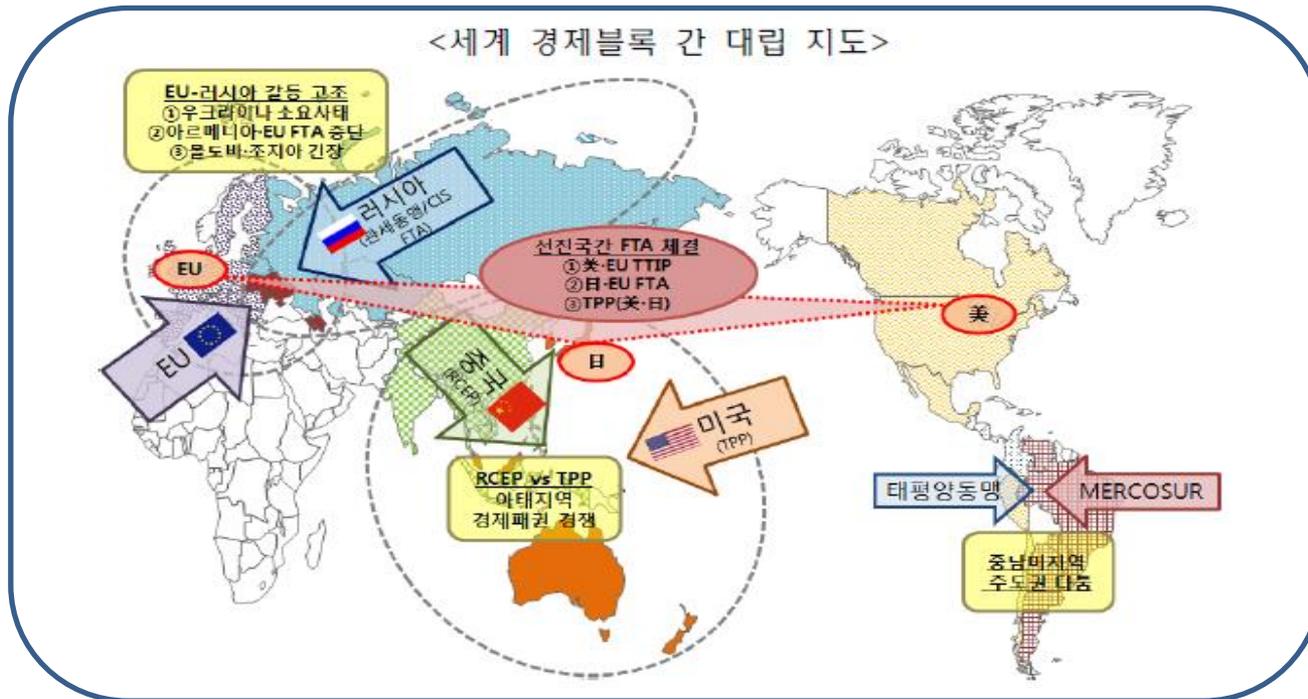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거대 경제권 간 메가 FTA 추진 확대

-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의 수출확대 정책
- 중국의 세계경제 주도권 확대
- 자원확보, 외환 등 포괄적 경제협력 수요 증대



지역별 FTA를 통한 '경제블록 간 주도권 경쟁' 심화

- 유럽 : EU vs 러시아
- 동아시아 : RCEP vs TPP
- 중남미 : MERCOSUR vs 태평양동맹



I 최근 메가 FTA 추진 동향

주요 메가 FTA 개요

경제블록	참여국가	경제규모	비고
RCE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16개국 참여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 호주, 뉴질랜드	인구 : 34.3억 명 GDP : 18조7천억 달러 (전 세계 GDP의 29.3%) 교역 : 10조5천억 달러	시작년도 : '13년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12개국 참여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 말레이시아, 일본	인구 : 7.9억 명 GDP : 27조7천억 달러 (전 세계 GDP의 37.1%) 교역 : 9조5천억 달러	시작년도 : '10년
한중일FTA	한국, 중국, 일본	인구 : 15.2억 명 GDP : 15조3천억 달러 (전 세계 GDP의 21.2%) 교역 : 6조6천억 달러	시작년도 : '12년
TTIP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미국, EU	인구 : 8.2억 명 GDP : 32조9천억 달러 (전 세계 GDP의 45.6%) 교역 : 15조6천억 달러	시작년도 : '13년
PA (태평양동맹) 4개국 참여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인구 : 2.1억 명 GDP : 2조 달러 (전 세계 GDP의 2.8%) 교역 : 1조 달러	시작년도 : '11년 타결 : '13년 9월

Ⅱ 주요 FTA별 논의 동향

1. TPP

- 정식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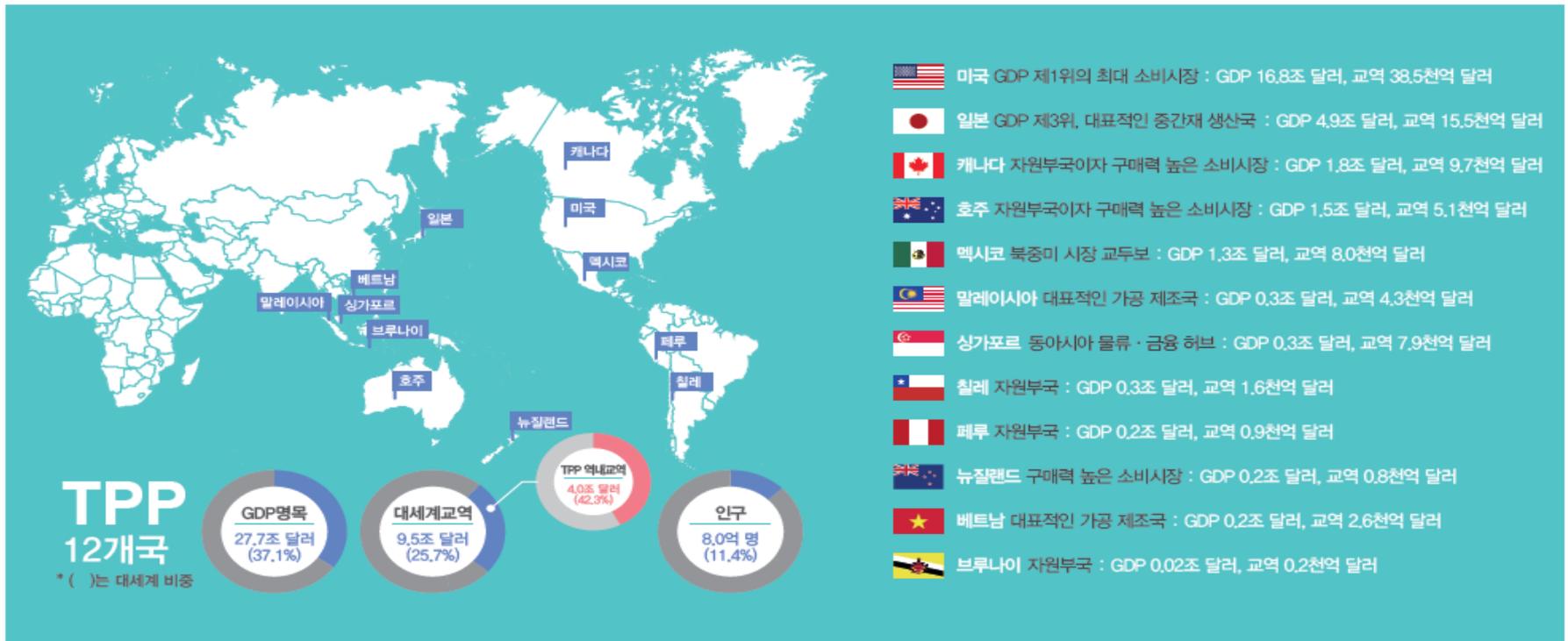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 참여국(12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 목표 : 예외 없는 관세철폐 등 수준 높은 시장개방

공산품, 농업, 정부조달, 지재권, 노동, 금융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



Ⅱ 주요 FTA별 논의 동향

주요 분야별 협상 진전 사항

분 야	내 용
상 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은 5개 민감 품목(쌀, 돼지고기, 쇠고기, 유제품, 설탕 등)보호를 원하고, 미국은 예외 없는 개방을 주장 → 일본의 쌀, 쇠고기 등 시장 추가개방 합의에 접근 미국은 일본 자동차 시장 비관세장벽 철폐 및 세이프가드 권한을, 일본은 미국 자동차시장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 →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시장 10년 내 개방 합의에 접근 호주, 뉴질랜드 등은 미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
원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내 누적 원산지 기준 도입 논의 섬유 분야에서는 미국이 '원사기준(Yarn Forward)'를 강하게 요구 역내 통합 원산지 규정 도입이 기본적 원칙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거티브 방식으로 국별 단일유보안 작성
지적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등이 의약품 지적재산권, 특허권 강화를 요구 (자료독점권 12년 주장, 현행 5년)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복제약 생산에의 영향, 의약품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반대
국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은 민간·외국기업과의 경쟁을 저해하는 국영기업 지원 철폐 주장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신흥국은 국영기업 보호를 위해 우대 철폐를 대신하여 국영기업의 내부 감사 강화, 예외분야 설정 등을 제시
환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국제조약과의 정합성에 대해 논의
투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배상을 요구하여 외국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투자자와 국가의 분쟁 해결 조항(ISDS)이 쟁점』

Ⅱ 주요 FTA별 논의 동향

우리나라의 TPP 참여

- ‘13.11월, 우리 정부의 TPP 참여 관심 표명

TPP 참여단계

관심표명

기존 참여국과의
예비양자협의

공식참여선언

기존 참여국의
참여승인

공식참여협상

타결 예상 시점

- 당초 아베 日총리 방미 기간(4.26~5.3) 중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었음.
- 그러나 당시는 미국의 TPA 법안 발효 이전으로 타결 불가능
- TPA 법안이 美 양원 통과 후, 5월 하순 타결 추진

TPA 법안 승인 절차

양원법안발의
(4.16)

상 원

재무위원회
가결

본회의 표결

필요 시,
법안
조정절차

대통령
서명

하 원

세입위원회
가결

본회의 표결

(4.28)

Ⅱ 주요 FTA별 논의 동향

2. RCEP

- '12.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협상 개시 선언
- 13년 협상 개시 및 '15년 협상 완료를 목표로 설정

- **정식명칭**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참여국(16개국)**

아세안 10개국,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 **주요 쟁점사항**

① 무역 자유화율

(일본, 아세안) 80%의 품목 관세를 10년 이내 철폐

(인도, 중국) 자유화율을 40%로 하자는 의향

(호주, 뉴질랜드) 자유화율을 80% 이상으로 요구

② 협상범위 및 방식

(호주, 뉴질랜드, 일본) 포괄적 FTA 추진 및 전 분야 일괄타결

(중국, 인도) 상품분야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자는 입장



Ⅱ 주요 FTA별 논의 동향

3. AEC

- **정식명칭**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 **아세안 10개국이 2015년 12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제 공동체**
13년 협상 개시 및 '15년 이행 완료를 목표로 설정
- **목표**

단일 경제권을 기반으로 하여 4대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5대 원칙(상품·서비스·투자·노동력·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12개 분야에 대해 협력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AEC Blueprint)

2008년-2009년	2010년-2011년	2012년-2013년	2014년-2015년
① 단일시장과 생산기반	② 경쟁력을 갖춘 경제블록	③ 균형 경제발전	④ 세계경제로의 통합
<p>아래 분야의 자유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무역 자유화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투자 자유화 • 자본 자유화 • 숙련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 12개 우선분야* 통합 • 식품, 농수산, 임업 개발 	<p>아래 분야의 토대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정책 강화 • 소비자 보호 • 지적재산권 보호 • 인프라 개발 • 조세 협력 • e-commerce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발전 •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를 통한 회원국 간 개발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경제관계 협력 •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 참여

*비즈니스, 통신, 건설 및 엔지니어링,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 관광/여행, 오락, 문화/스포츠, 운송

**자료원 : ASEAN 사무국

Ⅱ 주요 FTA별 논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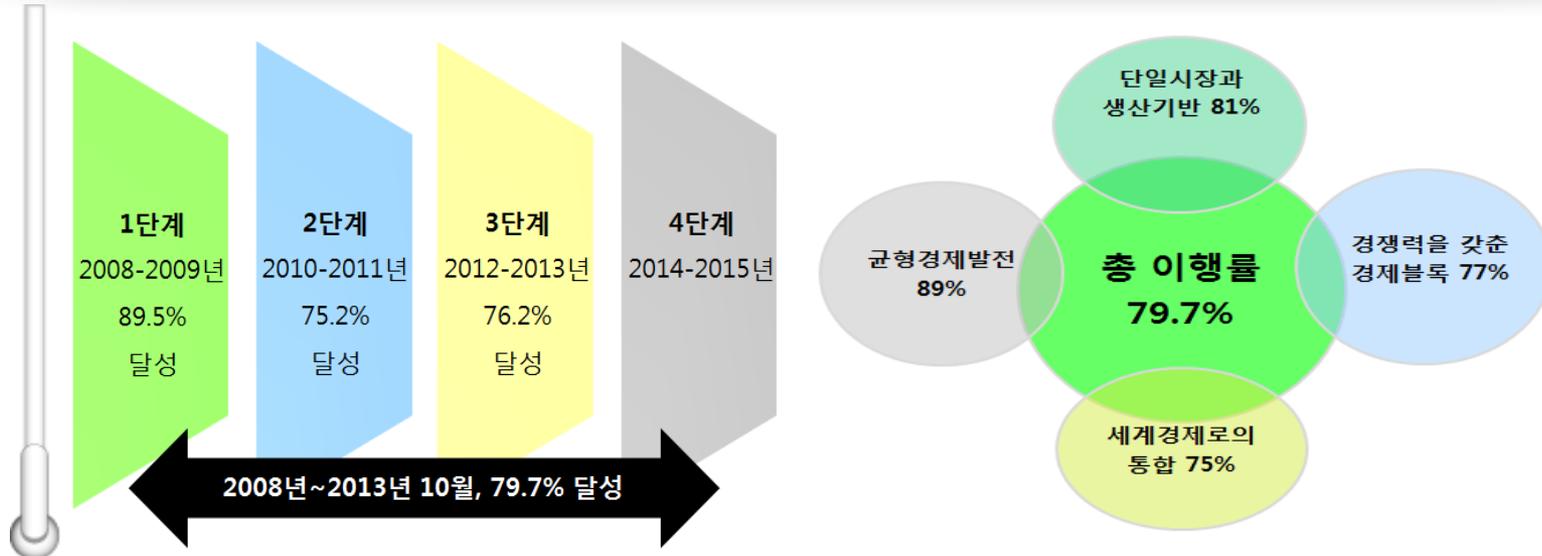
AEC 분야별 추진내용

구분	국가	추진 내용
품목별 관세인하	ASEAN6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우선통합품목) 2007년까지 수입관세 철폐 ·(일반품목) 2010년까지 수입관세 철폐 ·(민감품목) 2010년까지 민감품목의 관세를 0-5%로 인하
	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우선통합품목) 2012년까지 수입관세 철폐 ·(일반품목) 2015년까지 수입관세 철폐(일부 민감품목은 2018년까지) ·(민감품목) 베트남 2013년, 라오스·미얀마 2015년, 캄보디아 2017년까지 0-5%로 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ASEAN5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2010년까지 모든 비관세장벽 제거
	필리핀	·2012년까지 모든 비관세장벽 제거
	CLMV	·2015년까지 모든 비관세장벽 제거(동의를 한 부분에 한해 2018년)
서비스 자유화	4대 핵심분야 * 항공운수, e-ASEAN, 의료, 관광업	·2010년까지 70% 이상 허용
	물류 분야	·2013년까지 70% 이상 허용
	기타 분야	·2015년 70% 이상 허용
투자 자유화	ASEAN8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2014년까지 3단계 투자규제 및 장벽 철폐
	미얀마, 라오스	·2015년까지 3단계 투자규제 및 장벽 철폐
전문인력 상호인정	건설, 회계, 측량기사, 의사, 치과의사	·2008년까지 상호인정협정 자유화 완성(치과의사는 2009년)
	전문서비스인력	·2012년까지 상호인정협정 확인, 2015년까지 완전 자유화

II 주요 FTA별 논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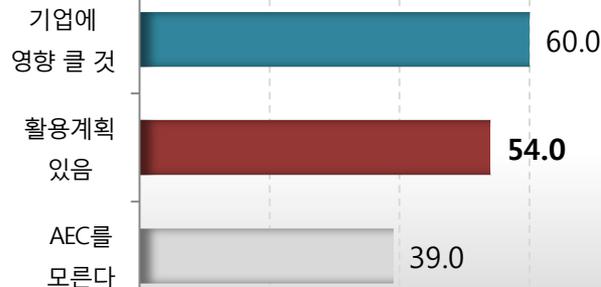
AEC 진행현황 (AEC Scorecard)

- 추진 장애요인
통합 거버넌스 부재, 회원국간 경제적 격차, 낮은 시장개방도(서비스 등)
- 15.12월 출범에 회의적 시각이 더 많은 편



자료원 : ASEAN Economic Community: From Perspective of Korea, ASEAN Secretariat

AEC역내기업 설문조사



아세안 역내 기업들은
AEC에 대한
인지도 낮은 편이나,
영향은 클 것이라고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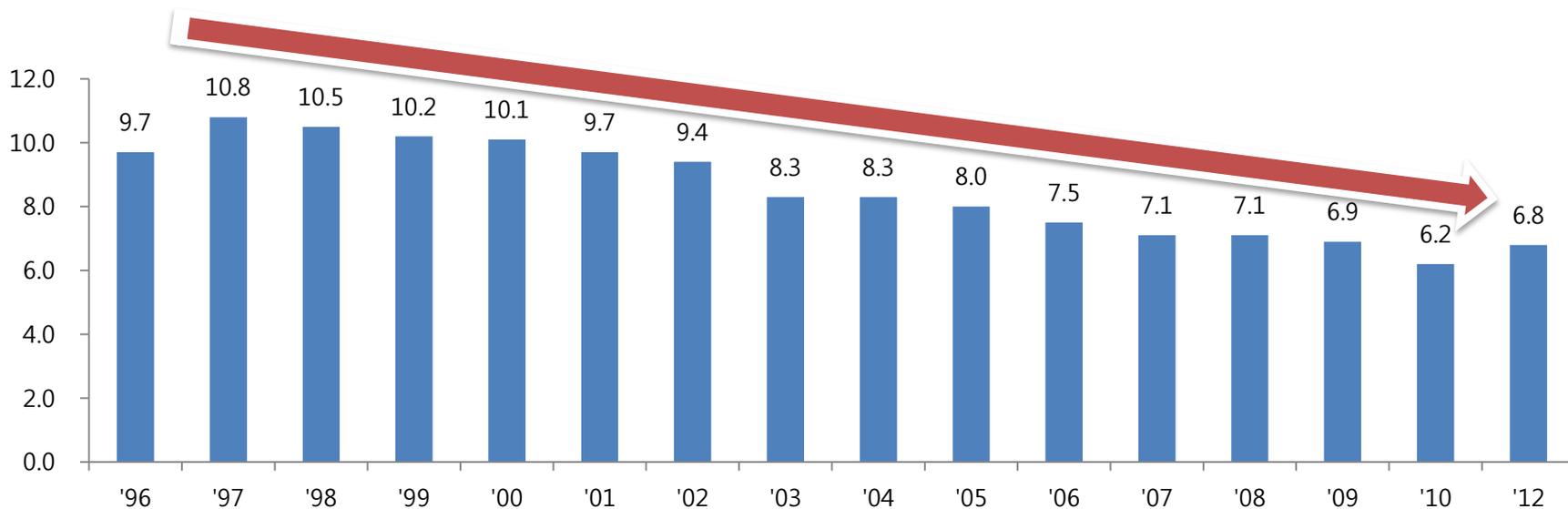
자료원 : '15.3월, 아세안 역내 271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KOTRA

Ⅲ 메가 FTA 추진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1. 낮아지는 관세장벽 vs 높아지는 비관세장벽



WTO 등 다자간 무역협상,
FTA 등 지역간 무역협정
확산으로
관세율 꾸준히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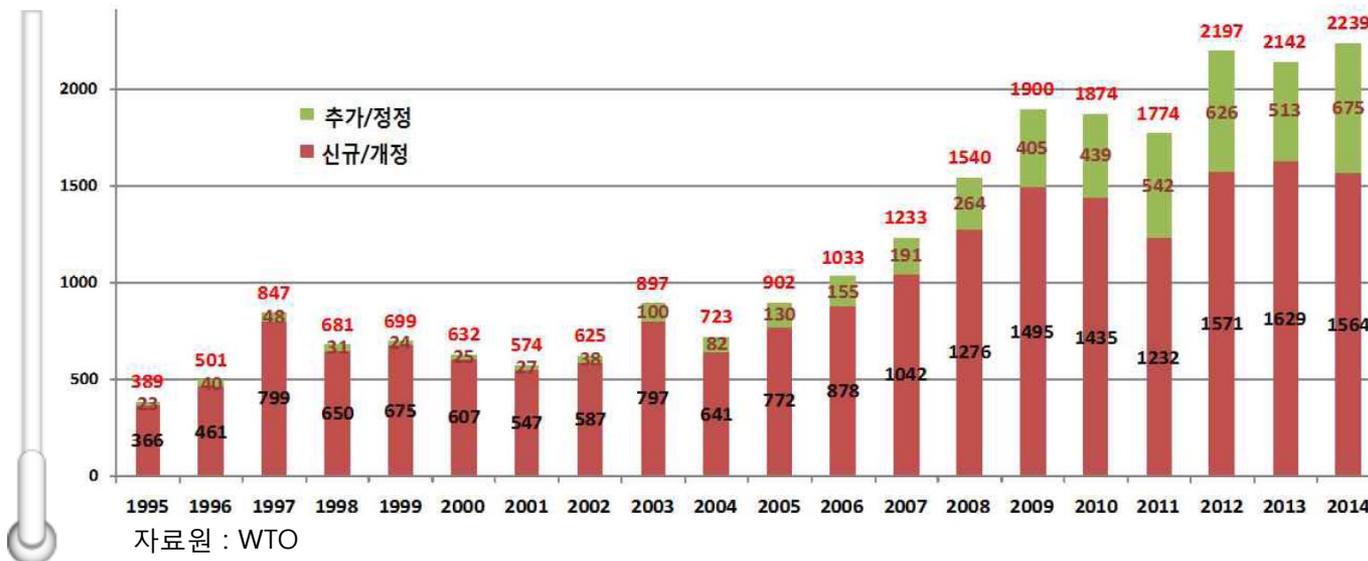


(자료원 : World Bank)

Ⅲ 메가 FTA 추진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 관세 통한 자국산업 보호 어려워지자 통관, 기술규제 등 비관세장벽 도입 확대

작년 전 세계 기술규제조치(TBT) 사상 최고치 기록 : 389건('95) → 2,239건('14)



증가배경

-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신흥국들이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기술규제 도입 시작
* 신흥국들은 전기전자, 식품 라벨링 등 개별 제품관련 규제 위주('13년 전체 TBT 통보 건수의 80% 차지)
- 국민 건강 및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 보호 등이 주된 도입 목적



2000년대 초반	국제경제질서 편입 과정에서의 국제표준과의 통일성 목적
최근	중국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

Ⅲ 메가 FTA 추진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2. 시장통합

- 참여국 간 역내 통합시장 구축으로 자유로운 상품, 서비스, 인력이동 추진
 - 관세인하, 서비스 시장 개방 등
- 역내 누적원산지 적용, 통합 원산지규정 채택 등으로 단일 무역규범 도입
 - 지재권 보호 강화, 전자상거래 활성화 규범, 통관 간소화 등
 - 스파게티 볼 효과 감소 기대

역내 누적원산지규정 적용 모델 예시 (한-아세안FTA 활용)



자료원 : 관세청

IV 기업의 대응전략

주요국별 산업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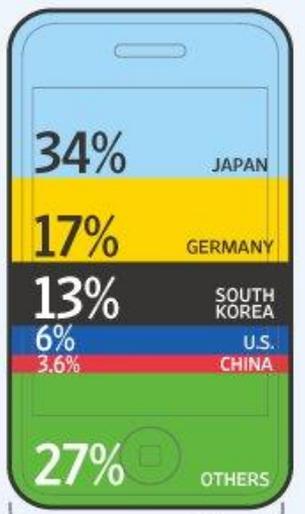
국 가	주요 동향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의류산업의 부흥 기대 : 안 포워드 기준 적용에 대비 (염색·방적 등 취약부문 육성, 적극적 외국인 투자 유치) • 하이테크 산업 발전 기회 모색 (소재부품)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아세안-인도를 연결하는 공급망 확대전략 모색 • 해외생산기지의 국내 유턴 증가 추세 (인건비 상승, 물류비 상승, 엔저 영향)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분야에서는 TPP 등으로 큰 영향 없을 것이라는 입장 • 특허 보호 등을 이유로 미국 내로 유턴하는 기업 증가 (전자 등) • 섬유업계 : 안포워드 기준 고수 • 의류업계 : 보다 유연한 원산지기준 주장
중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과잉생산 해소를 위해 중남미와 아세안을 활용한다는 전략 • 국내 인건비 상승, 규제 강화 등으로 자국 및 외투기업 이탈 움직임
태국,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 및 자동차 산업의 생산기지화 전략 • 태국 관련업계(전자, 자동차)에서는 TPP 가입요구 확대
호주,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 완전누적 원산지 규정 도입 강력 주장 (역내 자원공급망 확대 포석) •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요구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PP를 활용한 섬유, 전자, 자동차 등 대미 수출전진기지화 모색

IV 기업의 대응전략

- **역내 글로벌 밸류체인(GVC) 활용 및 참여**
역내 전체를 공급망 및 시장으로 최적 배치

Sum of Its Parts

The iPhone is assembled in China with parts from many countries, but when it comes to calculating the U.S. trade deficit the full value is attributed to China.



Value of iPhone 3G components and labor* \$178.96

*Estimates don't total 100% do to rounding
Source: Rassweiler

iPhone의 수출과 부가가치 관계

- 일본, 독일, 한국, 미국 등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조립
- 최종재 수출국은 중국 : iPhone의 판매가 증가하면, 중국의 수출도 증가
- 그러나 실제 부가가치는 소재부품을 공급하는 일본, 독일, 한국, 미국 등이 더 크게 증가

최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공급처와 생산기지 선정

TPP에 따른 베트남 섬유산업의 밸류체인 변화 예상

- 양포워드 기준 적용 → 원사 및 원단 소싱처 전환
(중국 또는 한국 → 일본 등 TPP 역내국)
- 베트남으로 투자 확대하는 중국기업의 대규모 생산 지배력 확대 예상
- 대미수출에 유리한 멕시코의 약진 가능성

❖ 외국 섬유기업들의 최근 베트남 투자진출 사례

- '14년 중 홍콩(Texhong 3억달러), 중국(Yulun 6,800만달러) 섬유기업들의 대규모 베트남 투자 진행
- 日 어패럴 기업들, 중국 생산비중 축소하고 동남아 지역 생산 확대 추진 중

IV 기업의 대응전략

• 역내 서플라이 체인을 통한 분업화 촉진 예상

-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멕시코 등 중남미 간 생산기지 역할 경쟁
- 일본과 중간재 수출 경쟁 : 최근 엔저를 바탕으로 일본기업들의 가격경쟁력 개선

*TPP 12개국에 대한 중간재 공급규모 : 한국(1,181억 달러), 일본(1,260억 달러)

TPP 역내 국가간 서플라이 체인 현황

역내 서플라이 체인 구축



한국 IT기업의 해외생산기지 다변화

베트남·印尼가 부른다... 한국 IT기업, 中서 南下



자료원 : 조선일보 ('15.5.4일자)

IV 기업의 대응전략

• 역내 통합에 따른 신규시장 적극 개척

- 글로벌 기업들의 역내 공급망 재편 → 중간재 및 소재부품 공급 기회
- 미국 및 일본기업들의 유턴 현상 → 미국 및 일본시장으로의 소재부품 수출 기회

유턴하는 미국 및
일본 전자기업

- GE, Coleman, Panasonic, Canon, Daikin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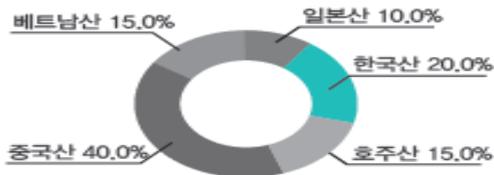
유턴하는 이유

- 신흥국의 저비용 효과 감소(인건비 상승)
- 지적권 침해 빈발(특허 시비)
- TPP 등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탄력

• 누적원산지 기준*을 활용한 글로벌 소싱 전략에 대응

- 1국 생산기지 전략 →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 예시



원산지규정 : 부가가치기준(RVC) 40%

한·미 FTA 활용

원산지기준 미충족
(한국산 20%만 인정)
관세혜택 없음



TPP 활용

베트남·호주·일본 등
TPP 참여국에서 조달된 부품이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부가가치 60%)받아
관세혜택 있음



*누적원산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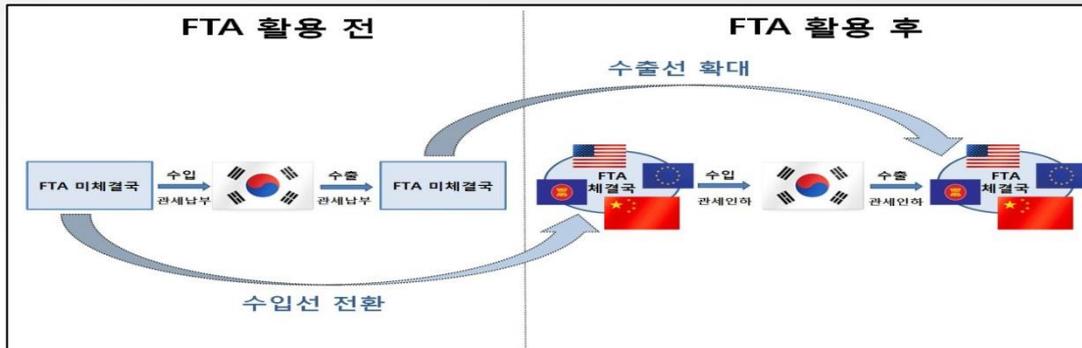
*누적원산지 기준 : 생산과정에서
FTA 상대국의 원산지재료
(역내산 원산지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재료를 국내산으로 인정
하는 기준

IV 기업의 대응전략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기업의 원자재 소싱, 생산방식(해외/국내), 판매처(수출/내수)에 따른 FTA 활용모델 필요
- 비즈니스의 모듈화를 통한 효율화, 정형화 가능

- ❖ 예시 1. 관세인하 활용
- 2. FTA 체결국 활용



- 원부자재 수입선을 FTA 미체결국에서 체결국으로 전환하여 생산 원가 절감
- ❖ FTA 체결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는 원산지 누적 기준이 적용되어 한국산으로 간주
- 원가절감으로 가격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수출선 확보 기대

❖ 예시 3. 무역거래조건 DDP 활용



- 무역거래 조건을 DDP로 변경하면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모두 혜택 발생
- ❖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 조건)는 수출자가 수입국 지정목적지까지 위험 비용을 부담(수입관세 포함)하는 거래조건
- 수출자는 수입 통관 시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단가를 높이고, FTA로 인하되는 관세만큼의 혜택 향유
- 수입자는 운임, 보험료, 수입관세 부담없이 무역 원활화 촉진

1. 한중FTA 협정문 (특혜관세, 원산지기준 확인)



- 우리나라 FTA 현황 한눈에 보기
- FTA 활용, 국내 지원대책
- 관세율 정보, 원산지정보
- FTA 정보광장 (최신뉴스, 참고자료, FTA 쉽게알기)

- 포털명: FTA 강국, KOREA
- 포털 주소: <http://www.fta.gov.kr>
- 연락처: FTA콜센터 1380
- 운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2.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이용하기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란?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 등이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회신의 효력

-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하며, 품목분류사전심사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포털명: UNI-PASS
- 포털 주소: www.customs.gov.kr
- 1. 관세청홈페이지 - 세계 HS 정보시스템 접속
- 2. 화면 이동 후 '품목분류사전심사' 클릭
- 3. 화면 이동 후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운영기관: 관세청

3. 원산지증명발급 및 검증지원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 원산지검증 (서류보관가이드, 검증사례, 원산지검증지원센터 FTA 사후검증 상담전담팀 (1577-8577))
- 협정별 자료, FTA통계, 세율정보
- 「한중FTA 100문100답」, 「FTA 활용기업의 필수지침서 BUSINESS MODEL 40선」

- 포털명: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 FTA
- 포털 주소: <http://www.customs.gov.kr/portallIndex.html>
- 연락처: FTA고객지원센터 (국번없이) 125
- 운영기관: 관세청

4. FTA무역종합지원센터



- FTA1380상담 (업종별·협정별·애로별 상담)
- 수출자, 로컬수출자, 수입자별 FTA Flow 절차 안내
- FTA 활용 (FTA 효과분석, 품목분류, 원산지지준확인,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발급, 원산지관리시스템, 서류 및 증빙 관리, 사후검증대응)
- FTA협정정보 (한국, 주요국, 전세계의 FTA 체결현황)
- 관세율/원산지 (수출, 수입세율 조회, 원산지 기준, 판정 시뮬레이션, HSK품목분류 등)

- 포털명: FTA무역종합지원센터
- 포털 주소: <http://okfta.kita.net>
- 연락처: FTA콜센터 1380
- 운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5. 국가정보 및 통상정보, 해외시장동향



- 151개국 국가정보
- 산업(상품)·기술 트렌드 (해외인증제도, 국별 유망산업보고서)
- 해외시장동향 (현장정보, 칼럼·기고, 포토뉴스, GW뉴스레터)
- 통상정보 (국가별 FTA·통상정책, 통관·수입규제, TBT, 기타무역장벽 관련 통상속보)
- 해외진출정보 (해외진출속보, 해외지재원보호정보, 투자실무자가이드, 주간투자뉴스)
- 연구보고서 (정치경제, 무역통상, 상품산업, 해외투자진출)
- 자료실 (권역별·국별 진출전략, 해외출장자료, 글로벌이슈페이퍼, 경제·통상 현안자료 등)

- 포털명: 글로벌윈도우 (KOTRA)
- 포털 주소: <http://www.globalwindow.org>
- 연락처: 1600-7119
- 운영기관: KOTRA

6. FTA 활용교육 소개



*KOTRA글로벌연수원 FTA활용 전문인력양성과정

- FTA 업종별 재직자과정, FTA 컨설턴트양성과정
- 문의처: 02-3497-1192

- 포털명: FTA 강국, KOREA
- 포털 주소: <http://www.ftagokr>
- 1. 정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 접속 후, 'FTA 사이버연수원' 클릭
- 연락처: FTA콜센터 1380
- 운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감사합니다

